

특별기고



장덕철 (포천 노인전문병원 한방원장)

이번 회에서는 건축은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이야기가 되었어야 할, 가장 중요한 테마이지만 간과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연재 순서와는 약간 차질이 있더라도 이해 있으시기 바란다.

구부러진 시골 논길을 뒷집지

건축과 사람

고 한가로이 걸어가던 시골 노인네의 사진이나 또는 자신의 단층 단독주택 앞에서 두 다리 쪽 뻗고 이른 봄볕을 즐기고 있는 누렁이의 사진을 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일까? 금방 어릴 적 시골 고향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달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금새 포근해지고 그리움과 향수에 젖을 것이다.

이에 반해서 만약 공장 굴뚝의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은 어떤 공장지대의 사진이나 도시를 관통하는 냇물에 온갖 오염물이 뒤섞인 오수가 쏟아지고 있는 하수구의 사진을 보신다면 여러분은 또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 아마 속이 메스꺼워지고 금방 토할 것같은 느낌을 받으실 것이다.

사진은 단지 사진일 뿐이다. 현재 눈 앞에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도 아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진의 그림에 바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과 건축과의 관계도 그러하다.

도시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직선 일변도의 죽은 건축 환경은 사람들의 감각도 죽게 만들어 주변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무디게 만든다. 그냥 무심코 받아들여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건축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 반응을 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멀리 가기도 한다.

<관광>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의 건축이나 경치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위해 가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금강산의 경치와 로마의 콜로세움,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인도의 타지마할,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 사원을 보기위해 사람들은 돈을 들여 그곳으로 날아간다. <보고 느끼기>위해, 이러한 경치나 건축물들에서 사람들은 늘상 둘러싸여 있는 도시의 아파 트단지에서 느끼는 무심한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한다. 사람들의 감수성이 살아나는 것이다. 주변 환경에 대한 무심함이 유심함으로 변하여 꿈틀댄다. 그러나 감수성의 살아남을 느끼는 것이 꼭 관광을 가는 것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늘상 생활을 하는 거실의 커튼의 색깔을 바꾸어보거나 작은 화분 하나를 새로운 위치에 놓아보면 무디어졌던 감각이 다시 살아난다. 사는 것은 <반응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아, 좋다>의 반응을 갖고 싶어한다. 풍경이 <자극>을 하

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한다.

여기에서 <자극>을 하는 풍경은 능동적인 위치에 있고,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수동적인 위치에 있다. 이런 관계에서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건축(집)은 한 장의 사진이나 한 쪽의 그림처럼 걸어놓았다가 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집과 관계하고 호흡한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 무드와 느낌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이- 건축의 힘이다. 사람은 집을 짓고, 집은 사람을 짓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건축과 사람과의 관계이다. 그것이 건축이 사람에게 주는 의미이다.

필자연락처 : 011-628-4214

목회단상

한국인의 멋



김형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각 민족마다 그 국민성과 독특한 멋을 갖고 있고 그 멋을 자랑한다. 멋은 어느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쉽게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오랜 역사와 문화 전통을 가진 민족일수록 풍기는 멋도 뚜렷하다. 영국이나 스웨덴이나 중국인의 멋이 애매한 것은 점토와 멋이 정비례함을 말해 주고 있다.

한국인의 멋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나는 한마디로 소박(素朴)함이란 표현을 써 본다. 소박이 뭐냐고 물으면 그것 역시 대답하는 사람에 따라 수없이 많은 해설이 나오겠지만 배우자를 고를때 무조건 활발한 사람을 내세우는데 그것은 한국의 멋이 우리 사회의 기계화 문명 속에 가려워지는 징조로 볼 수 있다.

온화한 마음, 진실한 행동, 정직한 생활이 은근함을 만든다. 그런 사람과는 누구나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끌여당기는 멋이 있는 것이다.

구수함은 꾸밈없는 담담함이다. 그것은 승냥의 맛과 같다. 승냥의 맛은 한국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모른다. 요즘 청소년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속제다. 소위 패스트 푸드시대는 태고의 전설같이 들린다. 짜릿한 콜라 햄버거 맛도 아니기 때문이다. 달콤한 포도주의 맛도 아니다. 만일 외국인이 승냥을 마시면 전연 맛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승냥의 구수함은 가공(加工)되지 않은 맛이다. 사람도 구수한 사람은 꾸며지거나 위장(偽裝)되지 않은 사람이다. 실수도 솔직하게 하고 자랑할만한 일도 그다지 광고하지 않으며 있는대로 내놓는 사람은 정말 멋이 있다. 성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교훈 하신다.

잠언서 12장26절에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 자신을 미혹하게 하느니라"고

문의) 031-532-2489



보육상담 11 공보육을 강화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여성가족부 2007년도 보육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여성가족부는 9월 27일 2007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서 보육 부분이 올해보다 32% 증가한 1조 4백 46억원이라고 발표하였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보육문제 해결을 통해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공보육 체계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적인 직장 및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 내용을 보면

도록 하였다. 2009년에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의 130%까지 확대계획 2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본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였다.

지원 단가는 : 0세 249 → 292천원 / 1세 104 → 134천원 / 2세 69 → 86천원 - 유아(3-5세)에 대한 기본 보조금제를 2006년 10월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 전체 도입에 대비하고 있다.

3 보육시설에 보육 서비스는 수준을 자율적으로 향상토록 유도하고 부모들의 보육시설 선택권 확대를 위해 평가인증제도를

강화하였다.

4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 - 시설장, 보육교사 자격관리, 보수교육 강화 등

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한다.

6 장애인 취업부모 등 다양한 보육수요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경준 중앙특수아원사업 원장 (031-534-0277)



포천시새마을회 국제교류

포천시새마을회(회장 강태선)는 국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포천시 자매도시인 중국 산둥성 레우시를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방문하여 남관중촌 마을과 지매결연을 맺고 장학금 300만원, 의류(유리넨100벌, 티셔츠300벌), 도시락 및 음식세트 등을 전달하고 매년 양국간의 우호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동보훈팀 사랑나눔운동

이동보훈지청 이동보훈팀은 박우철 명예이동팀장과 함께 관내 저소득가정 40가구에 사랑의 쌀을 전달하는 열음간의 사랑나눔운동을 전개했다. 이번 '사랑의 쌀 나누기'는 국가유공자 박우철(명승인 박경림 부친) 씨가 어려운 보훈가족을 위한 사랑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며 쌀(10kg) 40포를 기증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자유 기고

'감사합니다' 하루에 10번



이은미 서경대 사회복지학과 1학년

11월22일 6시30분, 겨울이라 해가 짧아져 어두운 시간. 대진대학교 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 부부를 대상으로 영화배우 엄영란 감사의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다'라는 특강이 시작됐다.

엄영란씨는 현재 72세로 숙명여대를 졸업하고 결혼정보회사를 경영하며 저서로는 '뜨거운 가슴에는 좌절이란 없다',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다'를 발간했다. 아내 역할로 여유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긍정적 사고 방식으로 하루에 '감사합니다'를 10번씩 하고 인생은 세계적처럼 추운 겨울이 있으면 따뜻한 봄이 오며 손바닥이 있으면 손등이 있듯이 목적을 위해서는 자존심을 버리고 어려운 고비

를 슬기롭게 넘겨 남편 내조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당부했다. 남편은 1년에 1번씩 아내에게 장신구를 선물하고 아내는 남편 대하는 것을 모성애로서 대하면 이해 못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1시간 30분 강의 내용에 공감하며 다들 함께 한 박수를 보냈다. 나 자신도 강의 내용처럼 아내로서 모성애를 갖고 남편을 대하고 노력하며 엄마로서 모든 역할에 충실하며 가족의 화합을 마음 속에 간직하며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다

자유 기고

아버지의 적금



윤경자 주부명예기자

유수처럼 흐르는 세월속에서 자식키우고 먹고 살며 사람도리 하다보니 젊음도 가고 자식도 짝 찾아 떠나고 슬로 위로움을 맞으려하니 건강이 떠나가더라. 무언가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은 일흔의 아버지님 그래도 쌀농사에 무, 배추, 들깨, 콩, 고추 등 모두 아버님의 손에서 우리 식구들 입에

들어가고 있었다.

공장 다니시는 어머니를 도와 살림도 하시면서 면사무소에 만원짜리 노역을 다니시는 아버님이 안쓰러워 매달 작은 용돈을 드렸는데 이자네시고 봄, 가을 청첩장에 부조금, 생활비도 만만치 않음을 알기에 많이 못드리는 것이 죄스러웠다.

그런데 어느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1,000만원짜리 적금을 타셨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말이 없었다. 평소엔 잔소리처럼 "아껴써라. 음식버리지 마라. 젊었을 때 벌어야지 일할 나이도 잠깐이

다"하시던 말씀이 가슴에 찔림 내려 앉았다.

"어떻게 그러실수가?" 한달에 꼬박꼬박 10만원씩 6년을 모으셨다. 그 돈을 어찌 금액의 가치만 가지고 볼 수 있겠나. 우리네는 장사한다고 아무 생각없이 저녁 한끼, 술 한잔에 써버리고 마는 돈을 당신은 절약하고 안쓰셨던 것이다. 어찌 드시고 싶지 않고 술 한번 사고 싶지 않으셨을까? 나도 15년동안 충분히 한달에 10만원은 안쓸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하루에 2만원씩 모아보기로 했다. 그리고 절대로 목표금액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자고 신랑과 굳게 다짐해 보았다.

동성유니테크 | 최첨단 설비 · 우수한 기술력이 함께하는 코끼리표 동성천(면) 테이프

Uni-Tech ELEPHANT products including UNI-FOAM, 스프레이, 락카, 양면 테이프, and other items. Includes contact info: Tel. 031)532-8004 Fax. 031)532-5792